

초의 선사 유물 무더기 발굴

동국대 불교학술원, 담양 용흥사서 4개월 조사 끝에 851점 소개

선다미미(禪茶一味)를 주창한 초의 스님이 직접 짠 가사를 비롯, 스님이 손수 옮겨 쓴 서책 등 조선 후기 불교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11월 4일 담양 용흥사에서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시범사업 자료조사 회향법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개·발표했다.

이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사업준비단(단장 김종욱)이 지난 7월부터 용흥사(주지 진우) 소장 850여 점의 고서와 사료를 조사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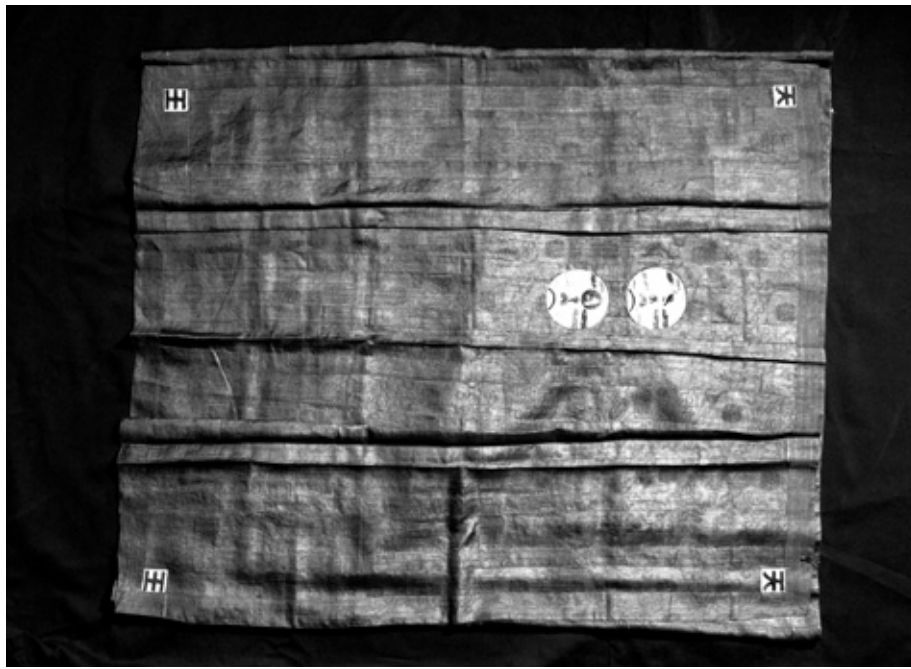
준비단은 조사를 통해 1457년 세조가 강진 무위사에 내린 교지를 비롯해 초의 스님이 직접 짠 가사, 초의 스님이 사용했던 도장과 책을 보관했던 목함을 발견했다. 또,

초의 스님의 친필 수초본(手抄本) 19권, <사기> 74권, <동사열전>·<만선동귀집> 필사본, 조선 후기 대흥사 문서류 등 중요한 사료를 확인했다.

이 자료들의 대부분은 초의 스님(1786~1866)→범해 스님(1820~1896)→원응 스님(1856~1927)→응송 스님(1893~1990)으로 이어지는 해동 다맥(茶脈)을 계승한 백운 스님이 스승으로부터 직접 물려받거나 평생 수집해 소장하고 있던 것이다.

특히 초의 스님이 직접 짠 가사는 불가의 사법(佛法)을 계승하는 증거인 의발(衣鉢) 전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동 다맥(茶脈)이 정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내력을 밝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조동섭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초의 선사의 가사로 추정되는 가사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③

아~ 무명의 아름다움이여

여주 고달사지 승탑
(驪州 高達寺址 僧塔)
국보 제4호
경기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1-1



고달사는 764년, 신라 경덕왕 23년(764년)에 창건됐다. 조선중기까지도 절은 존재했으나 임진왜란 이후 기록에서는 절터만 남은 것으로 나온다. 공예가 삼한을 떠날 때 스님이 되기 위해 머리를 깎은(落髮) 절이라는 구전도 있다.

국보 제4호는 고달사터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승탑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부도 중에 가장 크기가 크다. 높이 3.4m에 이르는 장중함을 자랑하지만 그 승탑의 주인공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달사원의 개산조이며 경문왕 8년(868)에 임직한 원강 대사의 부도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탑은 바닥의 형태가 8각을 이루고 꼭대기의 머리장식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잘 보존돼 있다.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기단(基壇)은 상·중·하 세 부분으로 갖춰져 있는데, 특히 가운데돌에 새겨진 조각들은 압권이다. 가운데 돌은 8각이라기보다는 거의 원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 새겨진 두 마리의 거북은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사실감이 느껴진다. 각 거북을 사이에 두고 네 마리의 용을 새겨 두었으며, 나머지 공간에는 구름무늬로 가득 채웠다. 돌에 꼭 차게 새겨진 무늬들이 과장되지 않고 세련되어 능숙하면서도

대담한 힘이 느껴진다. 가운데돌을 중심으로 그 아래와 윗돌에는 연꽃무늬를 두어 우아함을 살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라의 기본형을 잘 따르면서도 각 부분의 조각들에서 고려 특유의 기법을 풍기고 있어 고려시대 전기인 10세기 즈음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돌을 다듬은 솜씨도 깨끗하고 조각에서도 세련미가 묻어난다.

한편, 2011년 초부터 일제에 의해 명칭 규정 기준이 없었던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 석조문화재 407건 이름이 변경되어 사실감이 느껴진다. 각 거북을 사이에 두고 네 마리의 용을 새겨 두었으며, 나머지 공간에는 구름무늬로 가득 채웠다. 돌에 꼭 차게 새겨진 무늬들이 과장되지 않고 세련되어 능숙하면서도 명칭을 부여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원...불교 인재 양성 위한 20년

1990년 이래 2568명 배출해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계한)은 11월 1일 개원 20주년을 맞아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국대 정각원장 범타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 신인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 초대 불교대학원장 이재창 교수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개회사와 동국대 정각원장 범타 스님의 발원문을 시작으로 연례보고,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한 스님의 환영사, 김희옥 동국대 총장의 인사말, 문항진 총동창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행사로는 뮤지컬 '원효' 팀 공연과 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장 범만 스님의 법문가요 등이 펼쳐졌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한 스님은 환영

사에서 "100주년, 200주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불교발전을 위한 초석다지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졸업생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문항진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명호근 불교대학원 CEO 총동창회장, 불교대학원 CEO 14기 수석부회장 일심스님 등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은 1990년 11월 8일 교육부 설치인가를 받아 초대원장으로 이재창 교수(철학박사)가 취임했다. 1991년 3개학과 10개 전공을 개설 1993년 8월, 첫 석사학위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현재까지 석사학위 532명,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474명 등 총 2568명을 배출했다. 현재 불교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생사의례학과, 차문화컨텐츠학과, 명상상담학과 등 5개 학과와 장례비즈니스아카데미(FBA) 및 불교경영자최고위과정(CEO) 등 2개 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사회 영향력 있는 불교지도자 육성할 터”

문항진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문회장

“동문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학원 행사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원 발전이 곧 동문 개개인의 역량 강화라는 생각으로 한데 뭉치며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문항진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문회장은 20주년을 맞아 불교대학원 동문들이 더욱 하나된 힘으로 뭉치자고 당부했다.

문 총동문회장은 “1990년에 출범해 20여 성상 동안 2600여 동문을 배출한 불교대학원은 총림대 정체성을 세우고 불교를 통한 사회역량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불교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불교 정신을 통한 참사람 열린교육의 실천도량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문 총동문회장은 불교대학원 발전을 위해 출제기간 상호보완과 현장에 맞는 포교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동문회장은 “총동문회에서 현재 사회복지사 취득을 지원하는 등 포교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 정책 동향 제공 등 동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2010년 6월 동문회 사무실을 마련한 총동문회는 2012년 지역별 지부 설립에도 나설 계획이다.

문 총동문회장은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불교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며 “기금 모금을 비롯한 후학 양성, 후배 육성에 총동문회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불교계, 사회적기업 전문교육 본격 시작

기업가와 최고전문들 직접 코칭

사회적 기업가에게 직접 멘토링을 들을 수 있는 창업아카데미 강좌가 개설됐다.

남다른좋은날(이사장 김의정) 사회적기업 전문지원사업단(단장 이찬영)은 11월 15일~12월 9일 매주 화·금요일 조계종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사회적기업전문지원사업단 박주인 사무국장은 “안성 활인선원, 부산 불교신도회관, 광주 조선대 내 대광사 등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강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며 “불교계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좌는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미션과 비전 ▷사회적기업 설립 프로세스 및 마케팅 ▷회계·자금관리 ▷노무 및 경영관리 등 총 11강좌로 구성됐다.

강의에는 고용노동부 및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컨설팅 교수 등의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며, 경창수 안산의료생협 이사장, 육근해 도서출판 점자 대표 등 사회적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는 기업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찬영 창업지원단장은 “수강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감 있는 강의를 통해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강료는 10만원. www.LBA.or.kr (02)733-7276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활인선원 개산 3주년 참선대축제

안성 활인선원(선원장 대효)은 11월 11일 개산 3주년 참선대축제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11~13일 제6차 참선대중화선화, 11~18일 삼매체협수련회, 11일부터 30·50·100일간 진행되는 단기출가가 진행된다.

활인선원장 대효 스님은 “누구나 뜻을 내는 사람이라면 본분으로 돌아가 참 나를 회복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행복제작소의 도량으로 활인선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644-5266

조동섭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짚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히면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헛끼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매듭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의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기법계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헛끼매듭으로 만듭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기법계 늘려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산인쇄문화재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다함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